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산상변화주일】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3(통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
♠ 공동기도 .....	다함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꽃샘추위로 움츠러든 가슴을 활짝 펴고 부질없는 걱정들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온전히 맛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이에게 주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비록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지만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당당함과 기쁨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세상을 바라보며 쉽게 타만하고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산에 오르셔서 하늘의 영광된 광채를 덧입으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신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누룩을 일상의 자리에서 맛나게 삭혀가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고전10:13 .....
♠ 교 독 문 .....	76. 요한복음1장 .....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
대표기도 .....	I. 황경순 집사 II. 한상의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송 .....	450(통376). 내 평생 소원 이것뿐 .....
성경봉독 .....	I. 사11:6-9 .....
	II. 갈1:6-10 .....
찬 양 .....	찬양대
말 씬 .....	I. 꿈꾸는 교회학교 .....
	II. 다른 복음은 없다 .....
거둬기도 .....	다함께

찬 송 ..... 내 평생 주를 섬기리라 ..... 참빛찬양대

♠ 봉 헌 .....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자신의 이득에 집중할 때 복음의 본정신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욕심의 종노릇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자유롭게 사십시오.

다함께 : 아멘. 복음과 현실의 갈림길에서 욕심을 따라 길을 선택하며 살던 지난날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욕망과 적당히 타협하던 옛길을 버리고 진리의 새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십시오. 아멘.

♠ 찬 양 .....<주의 기도>..... 다함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말씀 : 손성현 전도사	성회 수요일 예배
	기도 : 김명희 집사

<b>다음 주 예배위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이성운 전도사 김기석 목사	장성호 선생 김재흥 목사	인도자 박혜경 권사

<b>2월</b>	영접위원	한상익 김중수 문홍일 이순정 이형숙 권미숙
	헌금위원	조병무 정경례(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지구의 순례자

발은 무겁고, 걸음은 느렸다. 마음은 어지럽고, 길의 끝은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산티아고가, 길의 끝이 다가올수록 나는 불안하고 초조했다. 길을 가는 모든 이들 붙잡고 묻고 싶었다. "산티아고가 눈앞인데 원하던 걸 찾았어요?" 그렇게 묻기 시작했을 때 쉼리를 만났다. 그녀는 캐나다에서 온 중년 여인이었다. "카미노에 왜 왔어요?" 내 당돌한 물음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었어. 나를 위한 선물로. 그리고 내 안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 내 영혼의 소리 말이야" "들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 메세타를 걸을 때였어. 이런 속삭임이 들렸어. ‘네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걸 믿어라’ 어이없을 정도로 단순한 깨달음이었어. 그러니까 내게 필요했던 건 결국 확신이었던 거야.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믿음, 그게 필요했던 거고, 카미노는 내게 그걸 주었어." 그녀가 내게 물었다. "너는 왜 카미노에 왔니? 뭘 찾고 있어?" "나는 걷는 걸 좋아해요. 내게 걷기란 명상 같은 거죠. 카미노를 걷겠다고 생각했을 때만 해도 내 안에 어떤 간절한 질문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데 카미노를 걷는 동안 내 안에서 계속 질문 하나가 맴도는 걸 발견했어요. 그 질문은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와 이어지는 거였어요. 길의 끝에서 내가 뭔가 결정을 내려야만 할 때 카미노가 그 답을 줄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답을 찾았어?" "아니, 못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산티아고에 도착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어지럽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불안했어요."

…… 나는 두렵고 불안했다. 길의 끝에 서면, 내가 이토록 그리워한 사람에게 달려갈 수 있을까? 그게 내가 원하는 걸까? 달려가서 내게 남는 게 뭘까? 어찌면 꼭 그가 아니어도 되는 건지 모른다. 나는 단지 배낭을 내려놓고 싶은 건 아닐까. 어딘가에 정착해서, 아이를 갖고, 그 아이를 낳아 키우며 늙어가는 삶, 난 그걸 그리워하는 게 아닐까. …… 모든 것이 흘러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데, 이 생은 단 한 번 그토록 짧게, 봄날처럼 머물다 사라질 뿐인데, 그 삶의 길에서 몇 번 찾아올지 알 수 없

는 이 감정의 흔들림을 끝내 모른 척해도 되는 걸까. 내가 살고자 하는 삶. 그건 자유로운 영혼과 상상력, 정직과 용기로 가득 찬 삶인데….

‘산티아고’라고 적힌 표지판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지독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삭이고, 삭이고, 또 삭이며 여기까지 잘도 걸어온 나. "너 참 잘했어. 참 장하구나." 꼭 끌어안고 입 맞춰주고 싶은 어여쁜 나였다.

아침에 순례자협회 사무실로 가 증서를 받았다. ‘카미노 데 산티아고’를 걸었다는 증서. 증서를 품고 사무실을 나와 성당으로 갔다. 천 년 전부터 이곳에 도착한 순례자들은 성당으로 가 제단 뒤의 산티아고 상을 끌어안았다. 지난 천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맞대었을 산티아고 상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를 올렸다. "여기까지 무사히 오도록 지켜봐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제 삶을 지켜봐 주셨듯이 앞으로 남은 제 삶도 지켜봐 주시겠지요. 제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온전히 제가 가고 싶은 길, 가야 할 길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가게 하소서. 그 가운데서도 이웃과 나누며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순례자들의 통과 의식을 마친 후 미사에 참석했다. 매일 정오에 성당에서 열리는 미사는 순례자들을 위한 특별미사다. 이 커다란 성당이 이미 가득 차 앉을 곳이라고는 없다. 나처럼 많은 순례자들이 바닥에 주저앉고, 벽에도 기대어 서 있다. 미사에서는 오늘 이 도시에 도착한 순례자들의 순례 시작 지점과 그들의 국적을 일일이 호명한다. "생장피드포르에서부터 걸어온 한 명의 코리아노" 이 말이 들리자, 눈물이 흘렀다. 천 년 동안 서 있었을 성당 기둥에 기대어 나는 오래 울었다.

이렇게 내 인생의 한 기회가 왔다가 갔다는 것. 무언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예감하던 시간이었다. 이제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가지 못하리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아무나 붙잡고 울고 싶었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싶었고, 내가 한 모든 어여쁜 일들도 말하고 싶었고, 내 가슴속에 터질 듯한 희열과 서러움과 행복과 슬픔을 표현하고 싶었다.

이제 ‘카미노 데 산티아고’는 끝이 났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새로운 삶의 길이 여전히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이 삶의 순례자인 것을. 어디로 가는지, 언제 이 길이 끝나는지, 계속 혼자서 가야 하는지,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순례 중인 지구의 순례자.

- 김남희 「걷기여행2」 중에서

## ■ 마/음/으/호/워/는/글

### 오래된 기도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이 멈추기만 해도  
꽃 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 음식을 오래 씹기만 해도  
촛불 한 자루 밝혀놓기만 해도  
솔숲을 지나는 바람소리에 귀기울이기만 해도  
갓난아이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그믐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바다에 다 와 가는 저문 강의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별뿔별의 앞쪽을 조금만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 이문재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우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해경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박시내 김순복 전영웅 김윤수 박상호 김준호 곽혜자 김혜권 박병구  
 김정애 오진훈 노순옥 이한림 김명희 임주빈 최현옥 허호범 박성실  
 김정애 박효선 박경원 이예정 장성호 전월수 이성운 양재성 임미심  
 이건식 이준희

### 월정헌금:

박옥순 고숙이 김종철 고영애 송의섭 송임희 이재구 황선희 이정은  
 하정석 이명희 전영자 조순덕 유지은 정완수 김재광 정원석 김현영  
 백성래 문홍일 정현숙 이병철 김현진 이현순

### 감사헌금:

김재흥 최희영 김준우 하재두 김성환 박경선 황영신 박병구 전성오  
 오은환 장원호 왕성환 강순배 김지혜 김정섭 무명

### 생일감사헌금

조관행 홍선희

### 녹색꿈 헌금:

양준하 곽상준 최경미 백묘현 문홍일 강미선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장혜숙	노봉임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배부례	김영한
안디옥	임정자	박미영	이재문	임정자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박경선	최종미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박애순	문금석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이인섭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허정윤	박효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이기분	이갑재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이순정	이봉옥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권미숙	이형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임수연	박찬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정영선	김희우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송양진	김수진
고린도	이영란	윤정화	방극숙	배삼순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박혜경	최영혜

##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재의 수요일 예배** :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집회를 재의 수요일 예배로 드립니다.
2. **졸업예배** : 오늘 오전 11시에 교육관에서 2008학년도 교회학교 졸업예배를 교회학교 연합으로 드립니다.
3. **참빛 찬양대 임명** : 2009년도 참빛 찬양대원을 임명합니다.
4. **임원회** : 2월 정기 임원회로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모입니다.
5. **초록가게 오픈** :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5호점으로 지정한 초록가게가 열립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지하 초록가게에서 개점예배를 드립니다.
6. **멀티탭 판매** : 멀티탭을 저렴한 가격으로 초록가게에서 판매합니다. 한 가정이 두 개까지만 구매 가능합니다.
7. **지방회** : 중구용산지방 지방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지방회원들은 꼭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 **교사 세미나** :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주제: 1분기 공과 말씀 주석, 강사: 손성현 전도사
9. **연주회** : 다음 주일 선교회 월례모임 전에 오카리나 전문 연주단, '오카리나수원'의 연주회가 있습니다.
10. **신앙다지기** : 3월 7일(토) 오후 4시 30분부터 매주 토요일에 8주간동안 제3기 신앙다지기가 진행됩니다. 신청은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11. **수련목회자** : 이성운 전도사님이 우리교회에서 3년간 수련목회자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금주 식당 봉사 : 베다니 속(다음 주 : 시온 속) 설거지 : 한상익 이준하

**새교우 소개** 전충길 (3남선교회) 윤성희 (6여선교회)

### ◀ 2009년 참빛 찬양대원 명단 ▶

대 장 : 유영남 지 휘: 안홍숙 반 주: 김수진 총 무: 진정숙  
 고숙이 정경례 백혜숙 조순덕 문복순 광권희 진정숙 김미순 정복순 박옥식  
 안정숙 문영혜 유경순 박혜경 김희우 이봉옥 구성실 송임희 박영희 이재문  
 문금석 임창선 이소순 김영순 박성실 박경원 박경선 조병주 김진경 이현순  
 이정은 박수경 박미영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일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